

# 주택청약저축 금리 6년만에 오른다...가입자 다시 늘까

### 이달 중 2.1%로 0.3%p 인상...시중은행과 격차 등 영향 첫 감소세 '9년 전 자격 요건 적용' 정책금융상품 '디딤돌 대출' 개선 목소리도

잇단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요지부동'이었던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드디어 오른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약 6년여 만이다.

그동안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부동산 및 분양시장 침체 속에 올해 처음 광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탈 청약시장' 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또 청약저축 금리 인상 소식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주택

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p 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금리는 사전 규제심사와 금융융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이다. 유권 이전등기 등을 할 때 1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할 경

우 부담금도 약 15만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저축 등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2019년 8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다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대출(전세)과 디딤돌 대출(구입) 금리는 앞서 7, 8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국토부는 기금 대출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 초 금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금리가 3%, 5% 이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도 1.8%로 낮아 이자 격차가 크다는 불만에 따른 조치다.

이처럼 청약시장의 낮은 금리에 지역 내 주택·청약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광주지역 청약시장 가입자 수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광주 가입자 수는 80만507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2010년 7월 기준 11만9909명이던 광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는 10년 뒤인 2020년 76만4166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79만2417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6월까지 79만8764명→80만820명→80만1911명→80만3272명→80만4287명→80만5513명 등 매달 1000명 이상 증가하다가, 7월 80만5389명으로 사상 첫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후 8월 80만5388명에 이어 9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6년이 넘는 기간 변동이 없었던 청약시장의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에 9년 동안 자격 요건 기준이 바뀌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책금융상품 '디딤돌 대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서

민들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연 2.15 ~ 3.00%로 금리가 저렴하지만, 신청대상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돼 있다.

주택도시기금에 따르면 해당 기준이 적용된 것은 2014년 1월 1일로, 이후 8년 10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다. 약 9년간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비입주자 백모(39)씨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해 생애 첫 주택 마련에 나서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9년 전 소득 기준을 아직까지 적용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점에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금배추' 값 내리는데 양념채소 값 치솟는다

### 배추 출하 늘며 한 포기 4060원...2주 전보다 23.8% 내리 고추 25% 등 양념류 전년비 두자릿수 ↑ ...사과·귤도 오름세

여름 '금배추' 파동을 불렀던 배추 가격 내림세가 가파르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배추 출하량이 '일마요 2221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소매판매된 가을배추 한 포기(3~4kg) 가격은 4060원으로, 2주 전인 5330원보다 23.8% 떨어졌다. 1년 전(5000원)보다는 18.8% 하락한 가격이다.

배추는 전남을 포함해 충청, 경북 지역 출하가 시작되면서 반입량이 증가했다.

가을무도 출하가 늘면서 무 한 개(1.6~2kg) 값은 2주 만에 31.2% 떨어진 2860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2000원)보다는 43.0% 높은 가격이다.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황 양호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오이(-7.5%), 상추(-13.8%), 애호박(-6.6%) 등 채소류 가격은 2주 전보다 내림세를 보였다.

김장철 양념 채소로 꼽히는 붉은 고추와 양파, 대파는 1년 전보다 가격이 '두 자릿수' 올랐다.

붉은 고추 100g 가격은 전년보다 25.0% 오른 1000원, 양파는 13.5% 상승한 2270원, 대파는 10.4% 오른 2760원에 거래됐다.

귤(1kg) 가격도 전년보다 9% 오른 1만7800원으로 조사됐다.

과일의 경우 사과와 김장철 소비가 늘기 시작하며 가격이 2주 전보다 8.6% 오른 10개 2만5200원을 나타냈다. 배는 작황이 좋아 꾸준한 내림세를 보이며 2주 전보다 5.2% 하락한 10개 2만9000원에 거래됐다.

쌀(20kg)은 작황 호조로 전년(5만5000원)보다는 9% 하락했다. 정부 수매 영향으로 2주 전보다 5% (5000원) 상승한 5만원에 거래됐다.

향후 2주간의 전망에 대해서 aT 관계자는 "배추·무 등 김장 관련 품목의 출하지역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큰 일교차로 인한 생육 부진과 김장철을 맞아 중부지방으로 공급이 집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내 반입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세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세열굴

#### "지역민 '희망 보증' 하는 금융 동반자 될 것"

김귀남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항상 상기하며 적극적으로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서비스 혁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 현장 경영을 통한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파악 등에 힘쓰겠다"며 재단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광주애육원 선정

광주은행이 70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을 선정하고 청소년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은행장과 윤경선 광주애육원장이 최근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선정 기념행사를 열고 1000만원 상당 후원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북구 동림동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광주애육원에서는 51명의 어린이가 생활하고 있다.

송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구성된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은 이날 광주애육원을 찾아 책상과 의자, 에어컨 등을 바꿔주며 쾌적한 학습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임직원들은 새롭게 단장한 도서실에서 어린이들과 다과를 나누며 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광주은행은 대표적인 장학사업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등을 진행하는 등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송 은행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아동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광주은행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2년만의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45개 업체 참여 110만달러 상당 협약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광주에서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무역협회는 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인 컨벤션홀에서 '2022 해외 바이어 단체 초청 수출상담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상담회에는 화장품과 미용 제품, 식품, 생활용품, 의류기기, 헬스케어 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광주지역 45개 업체가 참가했다.

또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에서 초청된 20개사 26명의 해외 바이어(구매 담당자)도 광주를 찾았다.

이들 기업과 구매 담당자는 117건의 수출 상담을 벌였다.

이를 통해 총 110만달러(15억2500만원) 상당 3건의 수출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거뒀다.

의료용 수술 봉합사 제조기업인 21세기메디칼은 베트남의 생면경관 관련 기업과 50만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스크팩 제조기업 미나페이는 키르기스스탄 기업과 30만달러, 부티뷰티는 말레이시아 측과 30만달러 협약을 맺었다.

이권재 본부장은 "해외 바이어와 광주 중소기업 간 일대일 맞춤 상담회와 시연회, 사전 검증을 통한 현장 계약 체결 등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에 수출선 다변화와 해외시장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 원·달러 환율 한 달여 만에 1400원 밑으로

### 中, 코로나 봉쇄정책 완화 기대 외국인, 국내 주식 매수 지속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99.04(+27.25)
↑ 코스닥	713.33(+12.85)
↓ 금리(국고채 3년)	4.156(-0.030)
↓ 환율(USD)	1384.90(-16.30)

8일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달러당 14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보다 16.3원 급락한 138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18.0원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10원대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를 새 30원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증가 기준 달러당 1300원대로 돌아온 것은 지난 9월 21일 이후 약 한 달 보름 만이다.

중국 보건당국의 부인에도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 시장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위험선호 심리를 되살렸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 매수를 지속한 것도 원·달러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에 힘입어 이날 1.15% 상승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782억원을 순매수해 원화 강세(원·달러 환율 하락)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10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기대감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 달러화 약세 압력이 동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수자원공사, 곡성 수곡리에 '나눔 우물' 개발

한국수자원공사는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리에 하루 5만 L (50㎥)를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을 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하수 관정 개발은 곡성군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수곡리 주민들은 계곡물을 이용해왔는데, 수원의 수량과 수질이 균일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수자원공사의 '나눔 지하수 사업'을 통해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수자원공사와 곡성군, 지역 주민들은 8일 관정 준공행사를 함께 열었다.

이영목 수자원공사 영·섬사업계획처장은 "이번 곡성지역 나눔 지하수 사업을 통해 물 공급 소외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어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